

日 방사능 오염수 무대책 '죽음의 바다' 공포

오바마 재선 도전 공식화

고농도 오염수도 바다 유출, 경로 못찾아...어민 반발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방사성 물질 오염수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면서 인근 해역이 죽음의 바다가 되는 것이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고농도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일시 저장하기 위해 저농도 오염수를 대량으로 바다에 버리고 있지만 고농도 오염수의 유출도 계속되고 있다.

냉각기능을 상실한 원전의 핵연료 냉각을 위해서는 계속 물을 주입해야 하지만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이 흘러내리면서 고농도 오염수가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물 3만 주입=고농도 오염수 2만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4일 오후 고농도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저장할 장소를 확보하기 위해 '집중폐기물처리시설' 등에 보관하고 있던 약 1만1500t의 저농도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기로 결정했다. 고농도 오염수를 저장할 장소가 없기 때문이다.

도쿄전력은 냉각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1~4호기 원자로의 핵연료와 사용후 연료를 냉각하기 위해 지난 17일 이후 약 3만t의 바닷물을 투입했다.

하지만 소방차와 레미콘압송기 등으로 투

입한 물 가운데 원자로나 사용후 연료 저장조로 들어간 물은 일부에 불과했다. 약 2만t은 오존층 되거나 흘러내리면서 고농도 오염수가 돼 터빈실이나 인근 작업용 터널 등에 고였다. 이 고농도 오염수는 치명적인 방사선을 내뿜고 있어 이를 제거하지않고는 원전 정상화의 핵심인 냉각기능 회복 작업을 진척시킬 수 없다.

◇ 고농도 오염수 바다로 유출=경로 못찾아 = 정부와 도쿄전력이 고농도 오염수 처리를 놓고 우왕좌왕하는 사이 일부가 바다로 유출되면서 해역 오염을 심화시키고 있다.

도쿄전력은 지난 2일 2호기 취수구 부근의 전력 케이블보관 시설에 고여있는 고농도 오염수가 갈라진 균열을 통해 바다로 유입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 오염수는 시간당 1000리터의 방사선을 내뿜고 있다.

도쿄전력은 이의 바다 유출을 막기 위해

콘크리트를 치고 특수 화학흡착제는 물론 톱밥과 신문지 등 임시적인 방법까지 총동원했지만 차단에 실패했으며, 지하의 어느 부분을 통해 바다로 흘러드는지 아직 유출 경로도 찾지 못하고 있다. 바다오염은 계속 심화되고 있다.

◇ "바다가 죽는다" 주민 반발 = 정부와 도쿄전력이 사전 예고도 없이 대량의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겠다고 발표하자 원전 주변 어민들은 큰 충격을 받고 있다.

후쿠시마현 어업협동조합연합회는 항의문에서 "오염수의 방출로 두번째 어업을 재개하기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고 반발하고 오염수의 바다 투기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어민들은 오염수 방출은 어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수 밖에 없는만큼 정부와 도쿄전력에 보상 등 대책마련도 촉구했다.

1300만 지지자들에게 이메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4일 오는 2012년 대통령선거 재선 도전을 공식화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1300만명의 지지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지속적인 변화는 빠르고 쉽게 일어나지 않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우리가 이룩한 성과를 지키려 노력하면서도 내가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하기 이전 여러분들은 2012년 재선을 위한 조직화를 시작해야 한다"며 재선 캠페인 착수를 공식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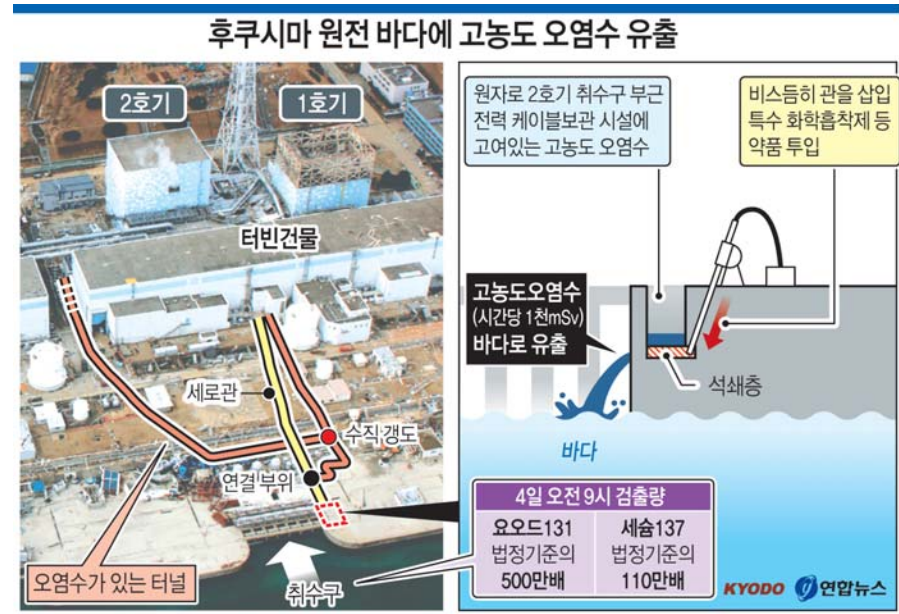
오바마 대통령은 연방선거관리위원회(FEC)에 재선 도전과 관련한 서류들을 이날 중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선거관리위에 재선 도전 서류를 제출하면 오바마 선거캠프는 본격적으로 선거자

금 모금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미 언론은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자금 모금액이 역대 대선 사상 처음으로 10억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오바마의 재선 캠페인 부분은 고향 시카고에 기반을 두고 있다. 백악관 비서실 부실장을 지낸 짐 메시나가 시카고 본부를 지휘하며 2008년 대선 캠페인 핵심 멤버인 데이비드 엑설로드 전 백악관 선임고문, 데이비드 플러프도 역할을 맡게 된다.

오는 2012년 대통령선거를 20개월 앞둔 시점에서 이뤄진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 도전의 성공 여부는 침체된 경제 회복 여부, 이라크·아프간 전쟁에 이은 리비아 내전 개입 등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에 의해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동해 안전은? "직접 영향 없음"

반감기 긴 핵종 관찰 필요

이웃나라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바다 방출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리 연근해의 방사능 안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해류의 방향이나 속도 등을 고려할 때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준의 방사성 물질이 바다를 통해 유입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반감기가 긴 세슘 등 핵종의 경우 태평양을 돌아 수년 뒤 미량이라도 흘러들어올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해양부 당기 시뮬레이션 '직접 영향 없음' = 조류의 방향으로 미뤄 이 방사성 물질들이 단기간에 곧바로 우리나라 연안으로 흘러들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실제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한국해양연구원은 북서태평양 해수의

움직임을 토대로 방사성 물질 입자의 이동 경로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측한 바 있다. 그 결과 방사성 입자는 4월 한 달 가장 후쿠시마 연안 지역에 머물다가, 5월 초 해류를 만나 남하한 뒤 다시 쿠로시오 해류를 따라 태평양 중심부로 흘러들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 수년간 태평양 돌며 확산, 희석 = 이렇게 태평양 쪽으로 흘러나간 해류가 한반도 연근해로 돌아오는 데는 수년의 시간이 걸린다.

전문가들은 바닷물이 태평양을 한 바퀴 도는 과정에서 희석, 확산되는 만큼 한반도에 연안에 도착할 때쯤이면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더욱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반감기가 긴 방사성 세슘(30년) 등의 경우 양은 적더라도 수년 뒤까지 남아 흘러들어올 가능성은 있는 만큼 추적과 관찰이 필요한 상황이다.



유엔 비행기 추락

4일(현지시간) 콩고 민주공화국 수도 킨샤사 공화에서 유엔 비행기가 추락해 탑승객 33명 가운데 유엔평화유지군 등 32명이 사망했다. 동강 난 비행기 주변에 사람들이 서 있다.

4일(현지시간) 콩고 민주공화국 수도 킨샤사 공화에서 유엔 비행기가 추락해 탑승객 33명 가운데 유엔평화유지군 등 32명이 사망했다. 동강 난 비행기 주변에 사람들이 서 있다.

방사능 오염수 방출 국제법 걸리나

기준치 없어 애매모호

일본 정부가 4일 발표한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출이 국제법상으로도 저촉되는지 여부가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정부는 일단 유엔 협정과 관련 조약들을 근거로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적용할 조항이 마땅치 않아 보인다.

현재 오염수 해양방출에 적용할 수 있는 국제법적 근거는 유엔 해양법 협약과 런던 협약 등이 있다.

유엔해양법 제210조는 '국가들은 폐기물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을 방지·경감·통제하기 위한 법령을 만들어야 하고 또한 책임 있는 당국의 사전허가제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가 1993년과 2009년에 가입한 런던협약 및 런던의정서는 폐기물 해양

투기 또는 배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해양투기가 허용된 폐기물 일지라도 해양투기 신청자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감축→재활용→소각→매립→해양투기)순으로 사전 검토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문제는 이들 국제법 조항이 오염수 방출의 구체적 기준치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선언적으로만 방사성폐기물의 해양투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거나 '최소한도'라는 애매한 표현을 사용했을 뿐, 방사성폐기물 해양투기를 어느 정도까지 허용하는지는 적시되지 않은 것이다.

한편 한·일 양국 정부는 작년 12월 '한국과 일본간 원자력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에 서명했으나 이 협정에는 방사성 물질의 해양방출에 대한 규정이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지연·윤치영 등 19명 독립유공자 서훈 취소

'시일야 방성대곡'으로 유명한 언론인 장지연을 비롯, 친일 행위가 확인된 독립유공자 19명의 서훈이 취소됐다.

정부는 5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형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영예수여 및 취소안을 심의, 의결했다. 서훈이 취소된 19명은 장지연

외에 종교인 김응순, 윤치영 초대 내무부 장관을 비롯, 강영석·김우현·김홍량·남천우·박성행·박영희·유재기·윤익선·이동락·이종욱·이항발·임용길·차상명·최준모·최지화·허영호씨 등이다. 총리실은 친일 행위가 확인된 독립유공자에 대한 영예 수여를 놓고 국가보훈처와 논의한 끝에 '서훈 취소' 원칙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협정의 철회와 및 오류를 정정한 새 비준동의안을 심의, 의결했다.

광주 음식물자원화 시설 공법 논란

광주시가 가동중인 음식물자원화 시설이 생산사료의 품질과 이물질, 부패, 수오염 한계 등의 문제를 안고 있어 신규로 건설 중인 처평동 음식물자원화시설 핵심 처리공법인 건조사료화 및 혐기성 공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나 광주시는 음식물 자원화시설의 설비 노후화에 따른 현상으로, 공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맞서 논란이 일고 있다.

건조사료화 및 혐기성 공법의 적절성을 파악하기 위해 김보현, 문상필 광주시의원 등이 주축이 돼 구성된 태스크포스(T/F)는 5일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처평동 음식물자원화 시설 핵심 처리공법을 채택한 동곡음식물 자원화 시설에서 생산된 사료 품질이 현저히 낮고, 사료에 이물질이 대거 포함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태스크포스는 건조사료화 및 혐기성 공법은 ▲저조한 메탄 생산량 ▲과도한 건

조에너지 비용 ▲연계처리수의 기준 미달 ▲악취방지 대책의 미비 등이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해당 자료를 내고 "지난 2006년 70여여원을 들여 만든 동곡음식물 자원화 시설 설비의 노후와 미비로 태스크포스가 지적한 문제점이 드러났지, 혐기성공법 자체로 인한 문제점은 아니다"고 밝혔다.

시는 "음식물자원화시설의 경우 반입된 음식물쓰레기량 대비 사료·퇴비생산량을 기준으로 하는 감사원과 달리 환경부는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대비 자원화시설 반입량 기준으로 해 자원화율이 2008년도에 90.5%에 달했다"며 "혐기성공법의 재검토보다는 태스크포스가 제기한 문제점을 명쾌하게 개선해 양질의 사료를 생산함으로써 안정적 수오염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이엘리시아

특허청 서비스표등록 제41-0187289

아이부터 어른까지 3대가 만족하는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고객님의 소중한 추억과 맛있는 행복을 약속합니다.

대·소모임 가능한 500석 완비!

150석, 92석, 52석, 32석, 24석, 12석의 다양한 룸구성으로 쾌적하고 이쁘게 모시겠습니다.

평일	영업시간	성인 (중학생이상)	인 (초등학생)	취학어린이 (5세-7세)	미취학어린이 (5세-7세)	토·일 공휴일	영업시간	성인 (중학생이상)	인 (중학생)	취학어린이 (초등학생)	미취학어린이 (5세-7세)
LUNCH	11:30 - 15:30	25,000원	12,000원	8,000원		LUNCH	11:30 - 15:30	31,000원	18,000원	12,000원	
DINNER	16:00 - 22:00	31,000원	18,000원	12,000원		DINNER	16:00 - 22:00	31,000원	18,000원	12,000원	

★ 어린이 요금은 의료보험증 등을 지참하시어 할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062)671-1199

유스퀘어 터미널 2층 CGV 옆

신진공인중개사 (임대전문)

- 광산구 광산동 농장.양어장.음매매**
 - ▶ 면적: 4,000평, 철도및유지(그린벨트) 관리사 15명(가든가능) 8미터 도로점
 - ▶ 매매가격: 협의후 결정
- 고흥군 금산면 토지매매**
 - ▶ 계획관리지역: 면적-14,000평, 8,500평 (10도 경사, 2차선 도로점)
 - ▶ 매매가격: 협의후 결정
- 남구 송하동 토지매매**
 - ▶ 대 지: 1500평(6차선 도로점)(700평)
 - ▶ 자연녹지: 700평 ▶ 일반공영지역: 800평
 - ▶ 매매가격: 협의후 결정
- 광산구 하남공단내 공장매매**
 - ▶ 대 지: 700평
 - ▶ 건물: 415평 (공장.사무실.기숙사)
 - ▶ 전 기: 400KW
 - ▶ 9번 도로점
 - ▶ 매매가격: 13억
- 회순 남면 매리 집종지매매**
 - ▶ 면 적: 1,800평(보전관리)
 - ▶ 건물: 건물 32평
 - ▶ 매매가격: 2억원

문의: ☎ 016-644-4265, FAX.523-8558

금산공인중개사

상무신도심 상·업·용·지 (C1지역) 매매

- 위치: 상무병원, 롯데마트 건너편, 삼성화재빌딩옆 (4면 광로변)
- 대지면적: 약 2,850㎡ (180평 분할가능)
- 3.3㎡당 매매가: 1,300만원
- 공동 복합 APT 주택가능 (최근 도시계획 변경)
- ※ 종합병원/상가/오피스 유출가능

장점

- ① 주상복합(공동 APT) 가능
- ② 광로변 최고 광고 효과
- ③ 롯데마트, 상무병원 건너 삼성화재 옆 최고의 상권
- ④ 최고의 교통 접근성 (광주시청 접근성과 광-송간 5·18 광로변)
- ⑤ 상무신도심 중심상업, 방화지구

※ 10층 신축건물옆 코너

H.P.011-601-5354

대인동삼일부동산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회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점점 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 른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이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않습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회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FAX)223-1772 ☎ 011-602-2532 (광주은행 신봉점, 대인동 소영서점내편)

다산공인중개사

물류창고 부지구함 매매·임대

광주권

전남일원

자연녹지

생산녹지

8M이상 도로 확보

4500㎡ 이상 (1300평 이상)

공인중개사 공동중개 환영

010-2441-1610